

사회

소규모 학교 초등교사, 중·고교 담임교사

내년부터 가산점 준다

광주시교육청 교사 승진 규정 대폭 조정

농촌 지역 근무 가산점 축소로 반발 클 듯

내년부터 교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광주지역 소규모 초교(12학급 미만)에 재직하는 교사와 중·고교 담임을 맡은 교사들이 가산점을 받는다.

농촌학교 가산점 축소에는 외곽 변두리 학교 등에 비해 3.3배나 높아 전체 승진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그러나 교육여건이 열악한 광산구 등 농촌지역 근무 교사의 가산점이 축소돼 교사들의 근무기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곽 변두리 지역으로 이른바 인사특구(월 0.003점)로 지정된 학교도 승진, 하남지구(비야,신가초 포함)로 축소하고 수완,신항,운남지구 등은 제외됐다.

광주시교육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선택가산점 규정 개정안을 공고,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소년체전 메달 획득 유공 교사 가산점도 절반으로 축소, 10점(금메달)에서 0.025점(동메달)으로 하향

공고안에 따르면 도심 공중화 등으로 학생 수가 격감하는 양동,수창초 등 관내 12학급 소규모 초등학교 근무 교사는 월 0.003점을 받는다. 대상 학교는 추후 선정된다.

교사들이 업무부담 때문에 꺼리는 중·고교 담임을 맡은 교사로 월 0.003점의 경력점수가 주어진다.

농촌 지역 근무 교사 등에 적용되던 일부 가산점과 자격증 가점 등은 조정됐다.

전남도교육청은 3일 나주와 신안 교육장을 공모로 선발하기로 하고 오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총동 10곳, 중학교 2곳 등 농촌 학교 근무교사에 대한 가산점은 월 0.01점에서 0.0075점으로 25% 낮췄다.

이번 교육장 공모 심사는 지역교육청이 1, 2차 심사를 전담했던 예전과는 달리 1차를 본청에서 서류심사를

했다. 정보 관련 자격증은 0.30점으로 통일했다. 하지만 농촌학교 등 기존 시행 지역 가산점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낮추기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교사에게 새로운 가산점을 발굴, 부여하는 노력이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농촌학교 등을 중심으로 가산점이 축소되는 교사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당초 축소 규모가 다소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지역의 경우 농촌학교의 출퇴근 여건 등이 많이 개선되는 등 교육 환경과 지역 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지역의 경우 농촌학교의 출퇴근 여건 등이 많이 개선되는 등 교육 환경과 지역 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지역의 경우 농촌학교의 출퇴근 여건 등이 많이 개선되는 등 교육 환경과 지역 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지역의 경우 농촌학교의 출퇴근 여건 등이 많이 개선되는 등 교육 환경과 지역 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올 수능 11월 10일

8월24일부터 원서접수...만점자 1% 수준 쉽게 출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0일 시행되고 원서접수는 8월 24일부터 시작된다.

원서 제출 후 응시영역과 과목을 변경하고 싶으면 9월 6~8일 지정된 장소에 변경신청서를 내면 된다.

EBS 수능교재와 수능시험문제의 연계율은 70% 수준이며, 문과생용 수리 영역 출제범위가 조정되고 탐구영역 선택과목수가 줄어든다.

응시 수수료는 3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4개 영역을 보면 4만2000원, 5개 영역은 4만7000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을 4일자로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수능시험문제의 난이도와 시험범위는 예고 한대로다. EBS교재와의 연계율이 70%, 영역별 만점자가 1% 수준이 되도록 출제되며, 수리 '나형'의 시험범위에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 포함된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올 수능은 11월 10일(목)에 시행되고, 성적은 11월 30일(수)에 통지된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최대 선택과목수는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든다.

응시원서 제출방법은 지난해와 같다. 8월 24~9월 8일인 접수 기간에 고3 수험생은 재학 중인 고교, 재수생은 출신고교, 검정고시 출신자 등은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장소에 각각

기사 자세한 내용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를 참고하면 된다.

나주·신안교육장도 공모

7일까지 신청 접수

전남도교육청은 3일 나주와 신안 교육장을 공모로 선발하기로 하고 오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실시, 3명의 후보자를 추천 뒤 2차 심사(면접, 토론)를 지역청이 맡도록 했다.



장애인 당구 최강전 치고 있다.

2011 전국 장애인 생활체육 당구동호인 최강전이 2일 광주시 남구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전국에서 출전한 장애인 당구 동호인들이 기량을 펼치고 있다.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복명'

12월부터 태블릿 PC 도입 10여개 노선중 택일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쉬워졌지만 도로주행시험이라는 복명이 이르면 12월부터 등장한다.

이로써 수험자 입장에서 시험에 떨어진 사유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도로주행시험 과정에 태블릿 PC를 도입하는 등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연습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요건도 강화된다.

태블릿 PC가 도입되면 여기에 10개 이상의 운전면허 시험장 인근 주행노선이 입력돼 도로주행시험 때 작위행 방식으로 선정된 노선을 운행해야 한다.

기존에는 인명 피해가 난 교통사고, 음주운전, 자동차 이용 범죄 등 중대 사항에 대해서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본 면허 벌점 부과항목 위반 사항도 3회 이상 발생하면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시험장별로 2~4개 정도의 노선이 사실상 지정돼 있어 해당 시험노선만 외우고 익히면 상대적으로 쉽게 합격할 수 있다. 시험관이 구두로 지시하는 주행 방향도 태블릿 PC를 활용해 내비게이션으로 음성 안내하게 된다.

지금은 이 같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법칙규 외에 별도의 행정 처분이 없다.

도로주행시험 시작과 동시에 태블릿 PC의 채점버튼을 눌러 채점관이 실시간으로 채점 내용을 입력하며, 채점 결과는 시험장 전산망에 자동 송출돼 사후 채점 기록 수정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발효되는 12월 9일에 이런 내용의 시행규칙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총리실 규제심사,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진행해 계획이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오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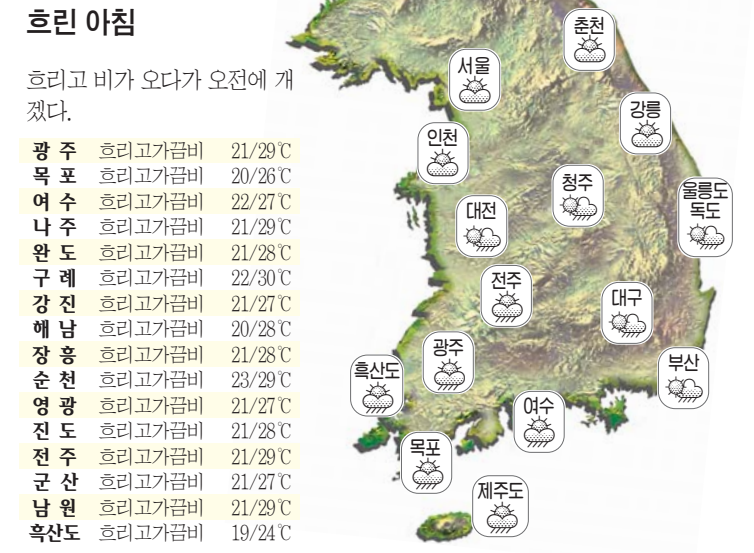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different regions,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precipitation, and wind speed.

전남대·독일 프라이온 호퍼 연구소 협력

기초·원천기술 R&D 나선다

'해외우수기관유치사업' 선정

전남대와 전북대 등 국내 6개 대학이 미국 하버드대, 존스홉킨스대, 일본 종합기술연구소 등 세계적 기관들과 함께 기초·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나선다.

구소 ▲서울대-미국 하버드대, NT(나노기술) 분야에서 ▲서울대-미국 존스홉킨스대의 ▲성균관대-영국 맨체스터대 등 모두 4개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글로벌 연구실(GRL)사업'과 '해외우수기관유치사업'의 올해 신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기관과 해외의 우수 연구기관이 협약을 맺고 연구인력·기술·연구비 등을 매칭펀드(공동출자) 형태로 확보, 국내에 공동연구센터를 설립·운영하는 해외우수기관유치사업 역시 3개의 새로운 과제를 정했다.

글로벌연구실은 세계 정상급 연구자(그룹)들과의 국제 협력을 통해 국가 전략분야 핵심기술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연구실에 연간 5억원 안팎의 연구비를 3~9년 동안 지원한다.

국내 연구기관과 해외의 우수 연구기관이 협약을 맺고 연구인력·기술·연구비 등을 매칭펀드(공동출자) 형태로 확보, 국내에 공동연구센터를 설립·운영하는 해외우수기관유치사업 역시 3개의 새로운 과제를 정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글로벌연구실은 BT(바이오기술) 분야에서 ▲부산대-일본 종합기술연

구소 ▲서울대-미국 하버드대, NT(나노기술) 분야에서 ▲서울대-미국 존스홉킨스대의 ▲성균관대-영국 맨체스터대 등 모두 4개이다.

Advertisement for 'Gasa' (가사) cleaning services. Features a large '50만원' price tag and mentions '초슬림!!' (Ultra Slim!!) and '가사' (Housework).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이수채' (Lee Su-chae).

Advertisement for 'I-Anji' (이앤지) water repellent services. Features images of 'ENG 방수' (ENG Waterproofing) products and text: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waterproofing yourself without technical skill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이앤지 방수' (I-Anji Waterproofing).